

선택의 기준

경제학의 출발은 선택의 문제이다. 의식주,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등 개인적인 문제와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제학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선택 즉,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선택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에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에서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고려해 볼 때 해방 이후 치른 55번의 각종 선거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 왔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듯이 정치지도자를 잘못 선출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게 커진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선택의 기준으로 후보자를 걸러 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격미달인 후보는 절대로 선출하지 말자. 각종 흑색선전을 퍼뜨리는 비방형, 허풍공약을 남발하는 공약 부실형, 돈으로 표를 사는 금품·향응 제공형, 각종 전과와 부정축재를 한 파렴치형, 지역·학연·혈연으로 표를 구걸하는 연고의존형 등 소위 선거 오적(五賊)은 선거를 통해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둘째, 21세기가 요구하는 지도자를 선출하자. 기업경영에서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든 경영방식에서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경영'으로 바뀌고 있듯이 시대에 따라 바람직한 지도자상이 바뀌고 있다. 경제발전단계에서는 경제·경영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다면 개방화·세계화의 시대에는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물가상승률, 실업률, 부도율, 산업생산증가율 등 4가지 지표로 작성된 지역별 경제적 고통지수가 있는데 제2대 지방선거 이후인 1999년과 2001년의 지역별 경제적 고통지수를 비교해 보니 제2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6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현재 구속되었거나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경제적 고통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덕성을 갖춘 단체장과 지역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셋째, 가치관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자. 가치관이란 오랜 세월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을 경제가치관에 따라 분류해 보면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는 시장경제론자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정부간섭주의자가 있다. 선거철을 맞아 후보자들이 쟁점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후보자들의 경제가치관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자신과 경제가치관이 일치하는 자를 선출하자. 1990년대에는 중도좌파 정부가 유립을 장악했으나 21세기 들어오면서 좌파가 퇴조하고 우파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음은 우리의 선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세계 13위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가 2020년에는 세계 7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데 정치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